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양계민 연구위원

Vol.15 2014. 0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개요 ▶▶▶

| 조사목적 |

- ▶ 본 연구는 2010년부터 시작된 다년간의 종단연구로, 연구 전체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에 위한 종단자료를 수집 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들이 비(非)다문화청소년들과 보이는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 다문화청소년들의 발달 및 성장과정에서 비(非)다문화가족 청소년과 보이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 도출
- ▶ 그 중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 발달의 변화양상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여 그 유형의 특성 및 유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 다문화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도출

| 조사대상 |

2011년도 당시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 중 다문화 청소년과 어머니를 3년간 추적

[표 1] 년도별 조사 대상자 수

(단위: 명)

	2011	2012	2013
어머니	1,625	1,484	1,417
학 생	1,635	1,502	1,445
가 구	1,625	1,490	1,432
유지율	-	91.7%	88.1%

[표 2] 조사대상 청소년의 지역별 분포

(단위: 빈도(%))

지역 \ 년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	182(11.1)	157(10.5)	150(10.4)
부산	74(4.5)	67(4.5)	60(4.2)
대구	42(2.6)	37(2.5)	34(2.4)
인천	68(4.2)	64(4.3)	63(4.4)
광주	42(2.6)	35(2.3)	30(2.1)
대전	25(1.5)	20(1.3)	18(1.2)
울산	31(1.9)	30(2.0)	30(2.1)
경기	384(23.5)	347(23.1)	330(22.8)
강원	90(5.5)	85(5.7)	83(5.7)
충북	75(4.6)	65(4.3)	61(4.2)
충남	117(7.2)	109(7.3)	107(7.4)
전북	108(6.6)	102(6.8)	100(6.9)
전남	160(9.8)	153(10.2)	153(10.6)
경북	102(6.2)	102(6.8)	101(7.0)
경남	120(7.3)	116(7.7)	113(7.8)
제주	15(.9)	13(.9)	12(.8)
합계	1,635(100)	1,502(100)	1,445(100)

| 조사방법 |

- ▶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CAP(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로 1:1 조사함.

| 조사기간 |

- ▶ 2011년 ~ 2013년 까지 매년 5월 ~ 8월 경

1. 3년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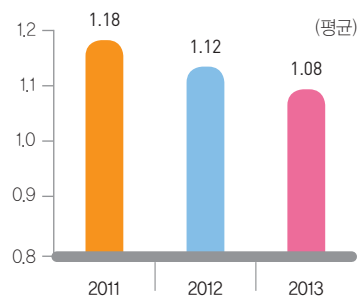
●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리적 적응 수준 증가

다문화청소년들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양한 심리적 적응지표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집단괴롭힘의 피해경험은 감소하였고,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삶의 만족도 등은 증가함.

[표 3]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의 연도별 변화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1.18(.41) _a	39.57***
2012	1.12(.35) _b	
2013	1.08(.29) _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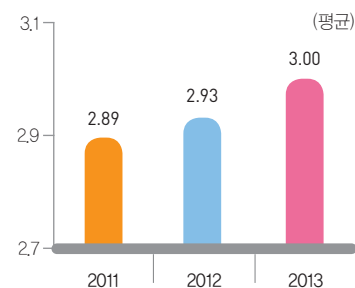
*** $p < .001$, Bonferroni: a)b)c



[표 4] 성취동기의 연도별 변화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2.89(.52) _c	28.79***
2012	2.93(.49) _b	
2013	3.00(.48) _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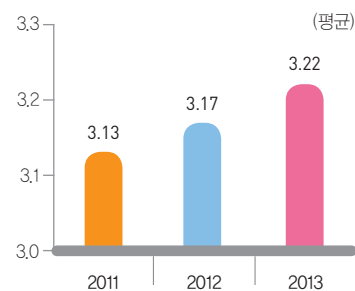
*** $p < .001$, Bonferroni: a)b)c



[표 5] 자아존중감의 연도별 변화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3.13(.55) _b	15.66***
2012	3.17(.55) _b	
2013	3.22(.53) _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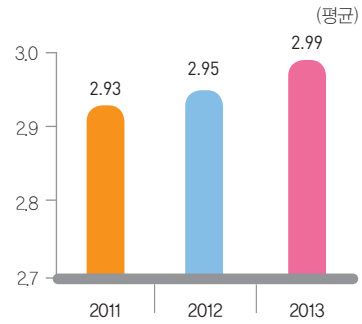
*** $p < .001$, Bonferroni: a)b



[표 6] 신체만족도의 연도별 변화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2.93(.49) _b	12.26***
2012	2.95(.50) _b	
2013	2.99(.49) _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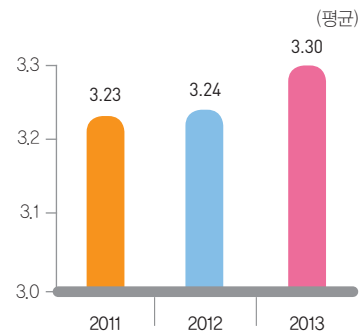
*** $p < .001$, Bonferroni: a)b



[표 7] 삶의 만족도의 연도별 변화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3.23(.59) _b	8.42***
2012	3.24(.61) _b	
2013	3.30(.58) _a	

*** $p < .001$, Bonferroni: 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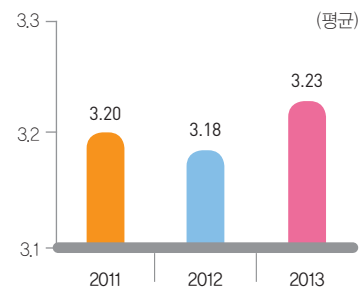
●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 증가

다문화청소년들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의 수준을 높게 지각하게 됨. 가족 의지지, 교사의지지, 친구의지지 수준 모두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8] 가족지지의 연도별 변화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3.20(.57) _{ab}	4.90**
2012	3.18(.59) _b	
2013	3.23(.55) _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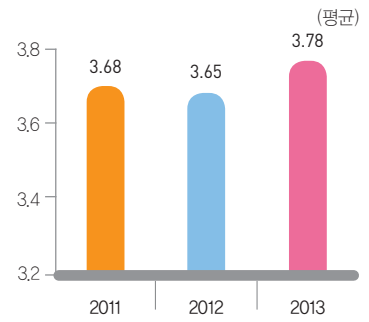
** $p < .01$, Bonferroni: a)b



[표 9] 교사지지의 연도별 변화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3.68(.88) _b	13.31***
2012	3.65(.89) _b	
2013	3.78(.87) _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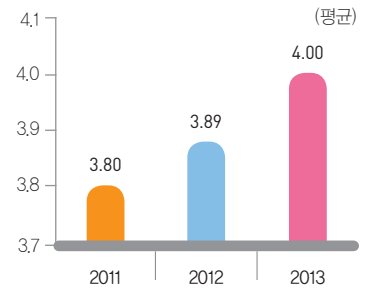
*** $p < .001$, Bonferroni: a)b



[표 10] 친구지지의 연도별 변화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3.80(.89) _c	37.46***
2012	3.89(.84) _b	
2013	4.00(.83) _a	

*** $p < .001$, Bonferroni: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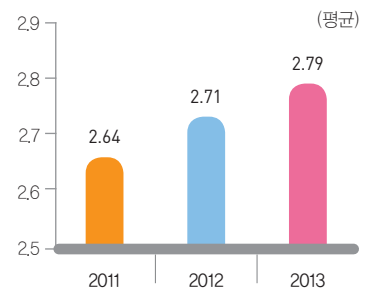
● 연령이 증가할수록 국가정체성 증가

다문화청소년들이 발달함에 따라 국가정체성이 증가함. 즉, ‘누군가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누군가 한국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욕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한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된 문항의 평균값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높아짐.

[표 11] 국가정체성의 연도별 변화

년도	평균(표준편차)	F
2011	2.64(.67) _c	27.04***
2012	2.71(.64) _b	
2013	2.79(.64) _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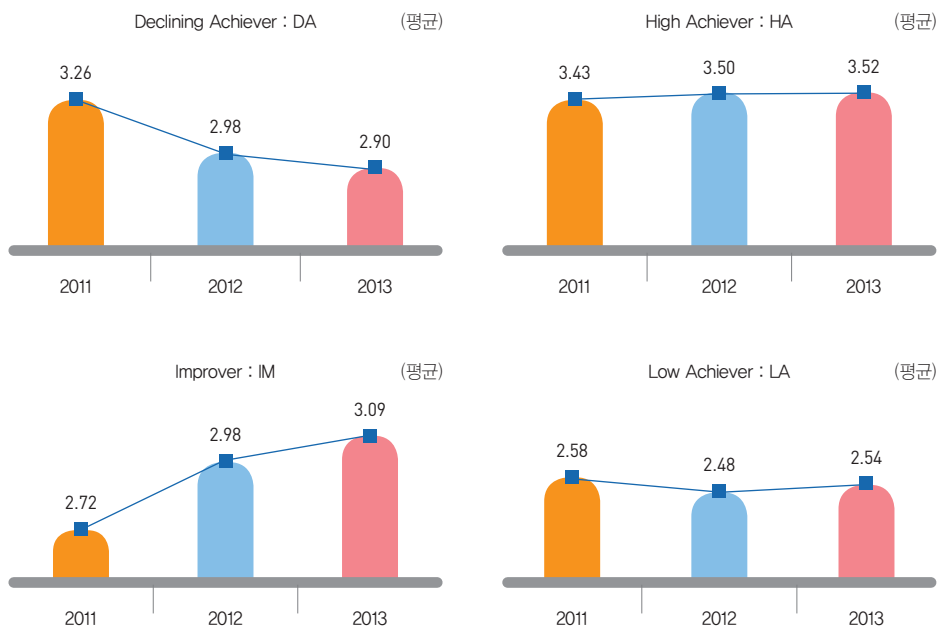
*** $p < .001$, Bonferroni: a)b)c



2. 3년 간 발달의 변화양상 특성에 따른 집단 차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3년 간 ‘학교생활적응의 발달양상’을 기초로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집단을 구분한 결과 총 네 가지 특성을 지닌 집단이 산출됨. 첫 번째 집단은 평균값이 처음에 높았다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지니고 있는 집단, 두 번째 집단은 지속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 세 번째 집단은 처음엔 낮았다가 점차 증가하는 집단, 마지막 네 번째 집단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지니는 집단임. 따라서 집단의 이름을 위의 모형에 근거하여 순서대로 DA(Declining Achiever), HA(High Achiever), IM(Improver), LA(Low Achiever)라 명명함.



[그림 1] 네 가지 발달특성집단별 학교적응의 연도별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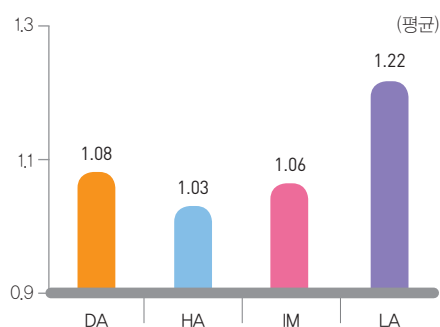
3년간 지속적으로 학교적응 수준이 낮은 집단(저-저: LA)이 전반적인 심리적응 수준에서 가장 취약하고, 3년간 지속적으로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집단(고-고: HA)이 가장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저-저 집단(LA)’의 경우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높고, 최종학력에 대한 기대 수준인 학업적 포부의 수준이 가장 낮으며, 성취동기, 자아 존중감, 신체만족도, 삶의 만족도 등의 수준이 가장 낮고,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수준이 가장 높음.
- ‘고-고 집단(HA)’은 최종학력에 대한 기대수준인 학업적 포부의 수준이 네 집단 중 가장 높고, 성취동기,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우울 과 사회적 위축의 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2] 발달의 변화양상 집단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1.08(.32) _b	19.33***
고-고 (HA)	1.03(.18) _b	
저-고 (IM)	1.06(.25) _b	
저-저 (LA)	1.22(.42) _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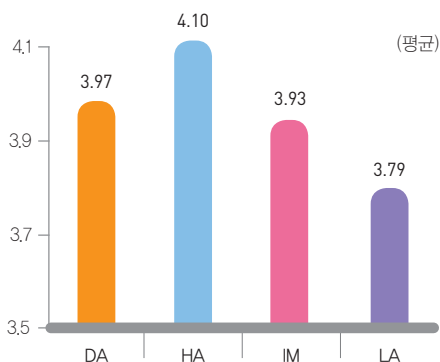
*** $p < .001$, Duncan: a)b



[표 13] 발달의 변화양상 집단별 학생이 원하는 학력 수준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97(.49) _b	16.50***
고-고 (HA)	4.10(.53) _a	
저-고 (IM)	3.93(.49) _b	
저-저 (LA)	3.79(.62) _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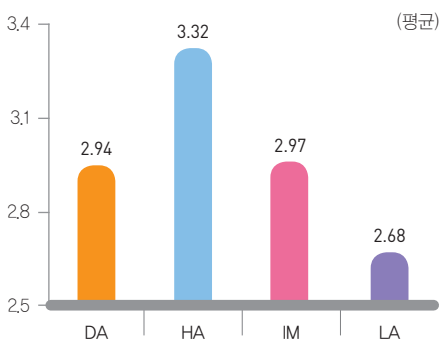
*** $p < .001$, Duncan: a)b)c



[표 14] 발달의 변화양상 집단별 성취동기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2.94(.40) _b	106.94***
고-고 (HA)	3.32(.45) _a	
저-고 (IM)	2.97(.44) _b	
저-저 (LA)	2.68(.46) _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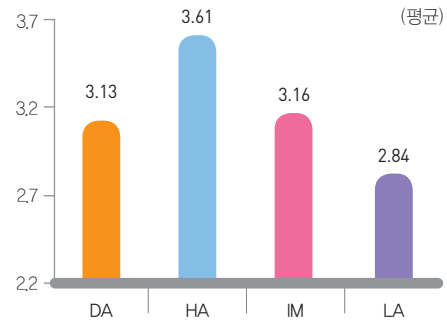
*** $p < .001$, Duncan: a)b)c



[표 15] 발달의 변화양상 집단별 자아존중감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13(.47) _b	143.10***
고-고 (HA)	3.61(.42) _a	
저-고 (IM)	3.16(.48) _b	
저-저 (LA)	2.84(.50) _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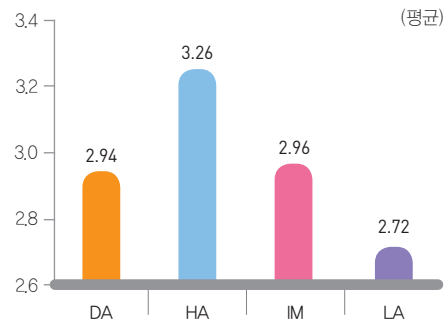
*** $p < .001$, Duncan: a)b)c



[표 16] 발달의 변화양상 집단별 신체만족도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2.94(.46) _b	71.59***
고-고 (HA)	3.26(.48) _a	
저-고 (IM)	2.96(.44) _b	
저-저 (LA)	2.72(.44) _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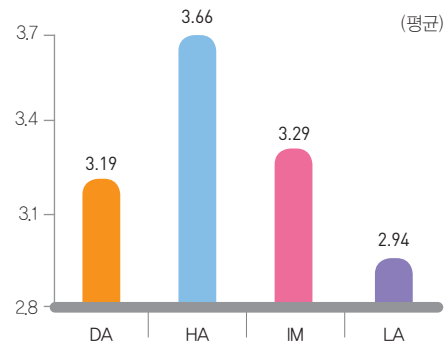
*** $p < .001$, Duncan: a)b)c



[표 17] 발달의 변화양상 집단별 삶의 만족도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19(.50) _c	96.99***
고-고 (HA)	3.66(.49) _a	
저-고 (IM)	3.29(.51) _b	
저-저 (LA)	2.94(.65) _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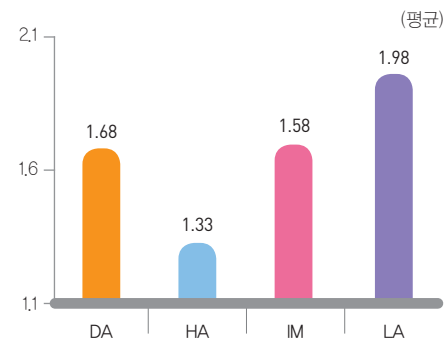
*** $p < .001$, Duncan: a)b)c)d



[표 18] 발달의 변화양상 집단별 우울수준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1.68(.49) _b	88.68***
고-고 (HA)	1.33(.44) _d	
저-고 (IM)	1.58(.48) _c	
저-저 (LA)	1.98(.54) _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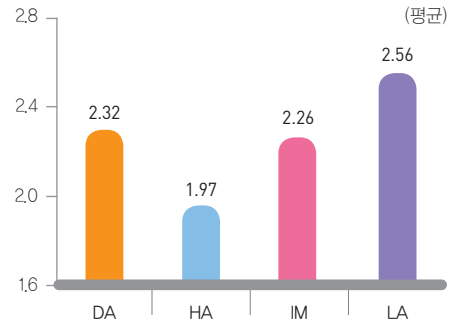
*** $p < .001$, Duncan: a)b)c)d



[표 19] 발달의 변화양상 집단별 사회적 위축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2.32(.68) _b	34.24***
고-고 (HA)	1.97(.78) _c	
저-고 (IM)	2.26(.66) _b	
저-저 (LA)	2.56(.65) _a	

*** $p < .001$, Duncan: 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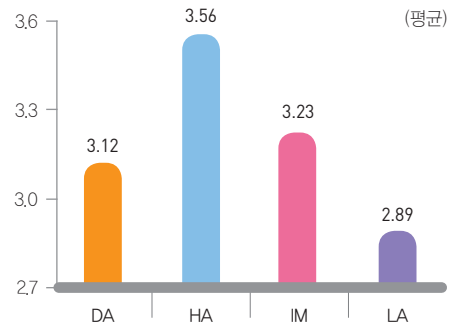
3년간 지속적으로 학교적응 수준이 낮은 집단(저-저: LA)의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가장 낮고, 3년간 지속적으로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집단(고-고: HA)은 사회적지지 체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족의지지, 교사의지지, 친구의지지 모두 ‘저-저(LA)집단’이 가장 낮게 인식 하였고, ‘고-고(HA)집단’이 가장 높게 인식함.

[표 20] 발달의 변화양상 집단별 가족지지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12(.50) _c	89.36***
고-고 (HA)	3.56(.53) _a	
저-고 (IM)	3.23(.48) _b	
저-저 (LA)	2.89(.55) _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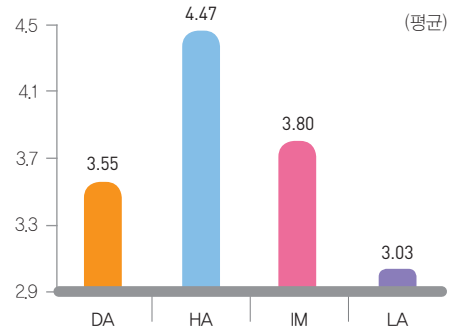
*** $p < .001$, Duncan: a)b)c)d



[표 21] 발달의 변화양상 집단별 교사지지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55(.79) _c	196.36***
고-고 (HA)	4.47(.62) _a	
저-고 (IM)	3.80(.73) _b	
저-저 (LA)	3.03(.82) _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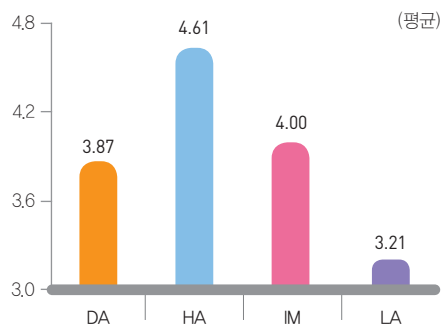
*** $p < .001$, Duncan: a)b)c)d



[표 22] 발달의 변화양상 집단별 친구지지

집단	평균(표준편차)	F
고-저 (DA)	3.87(.73) _c	184.80***
고-고 (HA)	4.61(.58) _a	
저-고 (IM)	4.00(.72) _b	
저-저 (LA)	3.21(.81) _d	

*** $p < .001$, Duncan: a)b)c)d



– 학교 내외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고-고(HA)집단’이 가장 높고, ‘저-저(LA)집단’의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23]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 유무

(단위: 빈도(%))

변인 \ 군집	고-저(DA)	고-고(HA)	저-고(IM)	저-저(LA)	합계
예	170(39.3)	205(56.3)	169(40.8)	70(32.7)	614(43.1)
아니오	263(60.7)	159(43.7)	245(59.2)	144(67.3)	811(56.9)
합계	433(100)	364(100)	414(100)	214(100)	1,425(100)

[표 24]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 유무

(단위: 빈도(%))

변인 \ 군집	고-저(DA)	고-고(HA)	저-고(IM)	저-저(LA)	합계
예	166(38.3)	178(48.9)	165(39.9)	65(30.4)	574(40.3)
아니오	267(61.7)	186(51.1)	249(60.1)	149(69.6)	851(59.7)
합계	433(100)	364(100)	414(100)	214(100)	1,425(10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114 Taebongro, Seocho-Gu, Seoul 137-715 Korea

Tel. 02-2188-8800 Fax. 02-2188-8869 www.nypi.re.kr

